



# KDVA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October 1, 2020  
2020 년 10 월 01 일

Members and Friends of the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주한미군전우회 회원 여러분,

Today, October 1, 2020, marks two notable milestones for the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The first is the 67th Anniversary of the signing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that formally established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1953. The second milestone is the inaugural of my duties as Chairman and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On such an important day for the Alliance, it is my great honor to assume these duties and to lead the Association forward in accomplishing our mission to enhance the ROK-U.S. Alliance by advocating for the Alliance, and by supporting the people who built and served the Alliance. 오늘 2020 년 10 월 1 일은 주한미군전우회에 있어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선 오늘은 한미 양국이 1953 년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위대한 한미동맹을 공식적으로 출범한 지 67 년이 되는 날입니다. 또한 제가 주한미군전우회의 제 2 대 이사장과 회장으로 취임하여 첫 업무를 개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미동맹 사(史)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지는 이날에 전우회의 사역을 이끄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지원하는 전우회의 사역에 헌신하며 전우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The four guiding priorities will remain unchanged. They are:

- Enhance, advocate for, and educate about the ROK-U.S. Alliance which is an essential part of each nation's security and prosperity, through forums, social media, newsletters, research, and events.
- Recognize and support service members, government civilians, and their families who have or are serving in the ROK-U.S. Alliance.
- Serve its members with professional networking, mentoring, volunteering, and researching opportunities.
- Honor and support the veterans who defended Sou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주한미군전우회는 다음 네 가지 사역에 지속적으로 헌신할 것입니다.

첫째, 포럼•SNS•출판물•연구•행사 등을 통해 한미동맹이 한미 양국의 안보와 경제 번영에 갖는 지대한 중요성을 알리며,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후원한다.

둘째, 한미동맹을 위해 사역하였거나 사역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기념하고 후원한다. 이는 한미 양국의 장병들 뿐 아니라 한미동맹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인원 및 그 가족 구성원도 포함한다.

셋째, 전우회 회원들을 위하여 인적관계망 형성•멘토링•자원봉사•연구 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대한민국과 한국 국민들을 수호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념하고,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To my predecessor, and founding Chairman and President, General (Retired) Walter L. "Skip" Sharp, I extend my deepest gratitude for his extraordinary leadership and vision that brought us to where we are today.

전우회의 초대 이사장/회장이신 샤프 장군님께 이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샤프 장군님의 뛰어난 리더십과 깊은 통찰력으로 전우회가 출범하여 많은 분들이 함께 연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Now,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the Board of Directors to grow the Association, in both numbers of members and also in our impact. And, to maintaining the closest possible connection between the Korean and American geographic membership groupings within the Association. With eagerness, I also look forward to hearing the perspectives of the Association members on ways to better reach the veterans of Korea's defense in the years since 1953, so that we can fulfill the legacy of our Korean War veterans.

샤프 장군님을 이어 저는 전우회 이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우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전우회 회원 수를 확대하고, 우리 사역의 긍정적 영향력을 증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에 계신 전우회 회원들 중 지리적으로 가까이 사시는 회원들께서 자주 교류하실 수 있도록 지역 단위 모임의 연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953년 휴전협정 체결 이후 한국에서 복무한 모든 장병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분의 지혜와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우리에게 남기신 유업(遺業)을 잇고 전우회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달성해 나갈 것입니다.

Enhancing the ROK-U.S. Alliance requires our worthy attention and our supportive efforts, in educating and in advocating. As a team that "goes together" with one another, from the numerous challenges of the past, and into the unknowns of the future, the Alliance reflects the commitment of our veterans over many generations. We owe it to them to help make the Alliance even better. I know I can count on you to help me in this effort!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담론과 교육 활동을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사역은 모든 이들의 전심전력(全心全力)을 필요로 합니다. '같이 갑시다'라는 한미동맹의 구호처럼 한미 양국은 과거의 많은 도전과제를 '같이' 극복하였고,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미지의 영역인 미래의 도전과제 역시 '같이'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여러 세대에 걸친 양국의 참전용사들과 전역 장병들의 헌신과 희생의 토대 위에 있습니다. 전우회는 이들의 헌신을 기념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전우회 회원님들께서 이 숭고한 사명에 저와 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If you know fellow Korea Defense Veterans who are not yet members, bring him, her, them our way – KDVA.vet. We are their Association to work "Together for the ROK-U.S. Alliance." 한국에서 복무하였지만 아직 전우회에 가입하지 않은 분을 알고 계시다면, 전우회에 가입하여 저희의 사역에 함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십시오. 주한미군전우회는 한미동맹을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을 기념하고 지원하기 위해 그 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위대한 한미동맹을 위하여".

KATCHI KAPSHIDA!  
같이 갑시다!



Vincent K. Brooks  
General, U.S. Army (Ret.)  
Chairman and President

빈센트 K. 브룩스  
미 육군 대장(예)  
주한미군전우회 이사장 및 회장